

전 국 모 임 귀 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 모임에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의 몸 된 교회의 진리를 따라 주님을 섬기며 전국 각처에서 분투하고 수고하시는 성도들께 감사와 주의 사랑을 전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저희 모임이 주님의 인도하심아래 14년 만에 첫 복된 분가를 하게 되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2000년 4월에 열 세 가정이 분당북부 지역에서 첫 예배를 드린 이래 주의 후원을 힘입어 꾸준히 영혼들이 더해져 89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회의 기도 속에 장로들은 협소한 장소를 늘려가는 것보다 교회의 배가원리에 따라 개척분가를 결정하여 장로로 섬기던 임채만 형제를 천거하여 43가정을 함께 광주지역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미숙하지만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를 도우셔서 신약교회의 진리를 좇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주님을 붙좇은 것을 기뻐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저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주교회를 전국의 모임에 기쁘게 천거합니다.

아래는 임채만 형제의 분가간증입니다.

‘광주로 보내짐을 받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창1:28) 얼마 전에 위 창세기 말씀을 생각하며 교회가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육은 하나의 개체로서 커지는 것이라면 번성은 하나였던 것이 여러 개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분당북부교회가 번성해야 할 시점이라는 부담이 있던 중 광주 지역으로의 개척분가를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광주는 모임이 수복되어야 할 지역으로 분당북부교회가 기도해 오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장로 모임 및 형제님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아래 이사야서 말씀을 듣고 이번 일을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네 장막 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사 54:2,3) 이 말씀대로 이 번 분가로 황폐한 성읍이 다시 사람 살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연약한 무릎을 붙드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보냄을 받은 교회와 보내는 교회 모두 새로운 생육을 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광주교회 : 주소: (우 464-892) 경기도 오폭읍 능평리 166-1 (2층) / 전화: 031-768-3137

2004. 4. 16

분 / 당 / 북 / 부 / 교 / 회

이동석

황성진

이동석
황성진